

신 야시마 수족관

신 야시마 수족관은 야시마 산꼭대기의 야시마 산상 교류거점 옆에 있는, 조그맣고 가족 친화적인 시설입니다. 1969 년에 ‘야시마 산조 수족관’으로 오픈하여 2019 년에 대대적으로 리뉴얼하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. 1970 년에는 전 세계 수족관 가운데 최초로 대형 아크릴 수조를 도입했습니다. 이 수조는 가가와현 미키초에 본사가 있는 NIPPURA(닛푸라)사가 제작한 것으로, 현재는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만 수족관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수족관 등 세계 각지의 수족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.

수족관에는 크고 작은 80 개의 수조에 약 150 종류의 바다 생물이 모여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있는 것이 펭귄, 수달, 서인도제도 매너티입니다. 야시마 수족관에는 두 마리의 서인도제도 매너티가 있는데, 일본에서 이 동물을 볼 수 있는 시설은 오키나와 츠라우미 수족관과 신 야시마 수족관 두 곳뿐입니다.

물범과 큰돌고래가 물속과 물위에서 재주를 펼치는 쇼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. 또한 바닥이 유리로 된 보트를 타고 바다 생물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거나 매너티와 펭귄, 바다거북 먹이 주기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.